

달빛 별빛 벗삼아 '영화소풍' 갈까요

제4회 무주산골영화제(주최 무주산골영화제 조직위원회, 주관 무주산골영화제 집행위원회, (재)무주산골문화재단)가 2일 막을 올렸다.

무주읍 등나무운동장에서 영화배우 박철민 씨와 김해나 씨의 사회로 진행된 개막식에는 무주산골영화제 황정수 조직위원장, 유기하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전라북도 송하진 지사와 안호영 국회의원, 무주군의회 이한승 의장, 전라북도의회 백경태 도의원 등 내빈들과 김태용 감독, 전계수 감독, 오기기미 나오코 감독, 한국영상자료원 류재림 원장, 영화평론가 달시파켓, 오동진 씨 등 영화관계자들과 일반 관객 등 2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페스티벌 프렌즈 오지호, 손은서 씨를 비롯한 영화배우 황승언 씨, 박지수 씨, 윤지민 씨, 김기천 씨 등이 자연 속에서 개최되는 영화제라는 의미를 강조한 그린카펫을 밟으며 무주산골영화제를 빛냈다.



2일 제4회 무주산골영화제가 개막했다.

무주산골영화제 막 올라... 개막작 김태용 감독 '만추' 6일까지 예천문화관 등에서 27개국 82편 영화 선보여

판소리와 라이브 연주를 입힌 복합문화공연으로 연주와 프로듀싱, 작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섹소포니스트 & 뮤지션 손성제 씨가 음악감독을 맡고 젊은 소리꾼 이소연(국립창극단 단원)가 소리를 더해 호평을 받았다.

무주산골영화제의 개막작은 해마다 과거 영화를 현대 방식으로 재해석해 주목을 받고 있으며 한국영상자료원과 공동으로 1회 때는 "청춘의 십자로(총연출 김태용)"와 2회 때는 "이국정원(총연출 전계수)", 3회 때는 "어느 여름밤의 꿈, 찰리 채플린(총연출 김종관)"이 번사와 라이브 연주,

연극 등 공연과 결합한 새로운 형태로 선보여 찬사를 받았다.

무주산골영화제 황정수 조직위원장은 "밤하늘을 지붕삼고 별빛, 달빛, 풀벌레 소리를 벗 삼아 떠나는 무주에서의 영화소풍이 정말 특별한 수 있도록 정성을 다 했다"며 "매해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성원을 발판삼아 무주산골영화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휴양영화제로 우뚝 서리라 기대해 본다"고 전했다.

제4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이달 6일까지 무주읍 예천문화관(대공연장, 산골영화관)과 등나무운동장, 전통문화의 집, 반딧불

시장, 안성면 두문마을 일원에서 개최되며, 5개의 섹션(창, 판, 락, 숲, 길)을 통해 27개국 82편의 국내외 영화가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총 상금 2천만 원이 걸린 한국영화 경쟁부문 '창' 섹션에서는 "어린이 정경(월드 프리미어) 김이창 감독"과 "소년, 달리다 강석필 감독" "공부의 나라 최우영 감독", "양치기들 김진환 감독", "델타 보이즈 고봉수 감독", "사월의 끝(월드 프리미어) 김광복 감독", "스틸 플라워 박석영 감독", "혼자 박종민 감독", "최악의 여자 김종관 감독", "프레스 최정민 감독" 등 10편이 상영될 예정인 가운데 뉴비전상(대상 상금 1천만 원)과 건지상(감독상 상금 5백만 원), 전북영화비평포럼상(상금 3백만 원) 무주관객상(상금 2백만 원)을 선정하게 된다. '창' 섹션의 뉴비전상과 건지상 수상작 중 1편은 6월 6일 폐막작으로 상영될 예정이다.

또한, 영화 "대배우 석민우 감독"를 비롯한 15편의 감독과 배우 등 관계자들이 영화 상영 일에 직접 현장을 찾아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김반장과 안디티", "국악콘서트 '락'" 등의 다양한 공연들과 안성면 두문마을 낙화놀이, 반딧불장터 야시장, 핸드프린팅 등의 부대행사, "프로과 간다 포스터 전시" 등 체험이벤트 등도 펼쳐질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별한 관람 원칙없이 무료로 편안하게 즐겨볼 수 있는 제4회 무주산골영화제 관련 정보들은 홈페이지(www.mjff.or.kr)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 수지미술관, '환상 교향곡' 전시

전라북도 남원시 수지면 물머리로 525에 위치한 수지미술관(관장 심은희)은 2015년 11월 20일 개관 이래 두 차례의 전시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세 번째 전시인 '환상 교향곡(fantasy symphony)'을 준비 중이다.



'낯선도시' 배병희 작.

2016년 6월 4일부터 8월 28일까지 진행되는 세 번째 전시 '환상 교향곡(fantasy symphony)'은 현대사회에 대한 비판의식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배병희 작가의 '낯선 위 시민들', '파편적으로 흩어진 관한루의 봄날에 대한 작가의 경험을 시각화한 송을 작가의 'When I was', 반복되고 패턴화 되는 도시의 생존과 그 속에서 삶을 유영하는 인간의 군상을 길고 양이의 응시로 투영한 홍민호 작가의 'Best Modern World' 등 젊은 예술가 3인의 시선으로 본 현실을 환상적으로 표현한 여러 작품들로 만날 수 있다. 세 작가의 작품들은 큐레이터를 통해 해설을 들을 수 있다.

을 통해 직접적으로 작가와 관객들이 소통할 수 있다. 전시 오프닝 리셉션은 2016년 6월 4일 토요일 오후 3시 수지미술관 이뜰리에서 진행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여성들의 곡비' 역할 문정희 시선집 '지금 장미를 따라' 출간

시인 문정희(69)의 시력(詩歷)은 한국시의 역사이자 한국 여성시의 역사로 통한다. 1969년 '월간문학' 신인상을 받아 등단한 그녀는 실존적 자의식과 함께 여성주의와 생명의를 대표했다.



문 시인의 대표 시집 '지금 장미를 따라'가 새 옷을 곁쳐 있었다. 2009년 나왔던 같은 제목의 책에 최근 시집 '다산의 처녀' '카르마의 바다' '영'의 작품을 추가했다. 대표 시선 15종의 시집에서 177편을 추렸다.

50년 가까운 시간을 두고 한 권의 책에 함께 속하게 된 시편들은 각자의 빛을 발하면서도 하나로 묶인다. "학창 시절 공부도 잘하고 / 특별 활동에도 뛰어나던 그녀 / 여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시에도 무난히 / 합격했는데 지금은 어디로 갔는가" ("그 많은 여학생들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노래하는 순간 공감대가 형성된다.

문 시인 시인은 6·25 동란의 참혹을 채 몸을 거두기 전이 땅에 여성으로 태어나 성장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시를 써 왔다. 여성의 삶과 여성에 전착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오히려 그녀의 시에 여성이라는 속박을 씌우고 여성으로 새 기준을 만들어 평가하는 것은 문정희 시에 대한 철저한 배반일 수 있다.

그 시대 많은 '여' 학생들이 뛰어난 능력을 보이기도 가사와 육아 등의 사회의 뒤편으로 자리를 옮겨야 했던 것처럼 문 시인의 시 또한 '여' 시인이라는 굴레를 씌워 평가되고는 했다.

대신 문 시인은 여성들의 곡진한 슬픔을 대신 울어 주는 '곡비(哭婢)' 역에 충실했다. /이성주 기자

'천출, 명인명창 6월을 수놓다'

도립국악원, 9~10일 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국악계 거장들의 명품 무대를 볼 수 있는 공연이 펼쳐진다.

전라북도도립국악원은 '천출, 명인명창'을 오는 9일과 10일 양일간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선보인다.

9일 공연에는 소리(조통달, 김일규, 송순섭), 고수(정화영), 거문고(김무길), 무용(국수호), 사물놀이(김덕수 외 한울림예술단), 입체창(전라북도립국악원 창극단 남자단원) 등이 이어서 10일 공연에는 소리(안숙선, 김수연, 유영애, 정순인), 가야금병창(강정숙), 고수(김창만), 무용(채향남), 민요(전라북도립국악원 창극단 여자단원)가 무대를 꾸민다.

공연의 첫 무대는 국악원 창극단장 조통달 명창이 판소리 '수궁가 중(범피종류)로 연다.

이는 '바다 한기운대로 배가 떠나간다'는 뜻으로 자라가 토끼를 피하여 수궁을 들어가기 전 바다와 산천의 풍경을 서사적으로 표현한 대목이다.

또한 김일규 명창은 '십정가 중(모녀상

봉), 송순섭 명창은 '적벽가 중(새타령)'을 부르며, 김수연 명창은 '홍보가 중(홍보 매 맞는 대목)'을, 안숙선 명창은 '춘향가 중(동현경사)'를 들려준다. 이 대목은 춘향이가 정절을 지키고 이몽룡과 만나는 장면을 흥겹게 표현한다.

김덕수는 사물놀이의 대표곡인 '삼도농악가락'을 연주한다.

이 곡은 팽과리, 징, 장고, 북의 사물을 통해 한국의 가락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음악의 원리(쇠는 하늘, 가죽은 땅을 의미)와 자연의 이치(바람, 구름, 비, 번개)를 구성으로 한 자연의 소리를 표현한다.

전라북도도립국악원장 광승기는 "명창은 하늘이 낳는다고 했습니다.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이 이런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간이 할 노력을 다하고 마지막에야 얻을 수 있는 소리의 경지를 명창이라고 하고, 명무라고 하고, 명인이라 합니다."

"국악원은 이런 분들을 모시고 도민들에게 한바탕 신명나는 판을 열려고 합니다. 최근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자



리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예매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연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오후 6시부터 선착순으로 잔여석을 배부 받을 수 있다.

공연은 무료이며, 문의는 290-5531~4, 최근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자

/정해은 기자

'비발디의 사계, 춤과 함께' 12일 우진문화공간예술극장서

글로벌아이스팅오케스트라와 CDP무용단의 협력공연 '비발디의 사계, 춤과 함께'가 오는 12일 오후 2시와 5시에 우진문화공간예술극장에서 열린다.

비발디의 '사계'는 현악기를 중심으로 구성된 작은 오케스트라로 연주하는 음악이지만 관현악 못지않은 풍성한 화음과 선율을 지닌다.

이 곡은 사계절의 자연과 거거서 어우러지는 사람들의 심상과 생활상을 그려낸다. 공연은 여기에 현대무용을 더해 '사계'에서 발견되는 사람들의 심리적 특징을 섬세한 몸짓으로 표현한다.

공연은 맑은 글로벌아이스팅오케스트라는 1981년 창단해 매년 정기연주회와 학교 순회연주,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음악회, 클래식 애호가를 위한 열린음악회 등의 기획연주회를 가져온 전문예술단체이다.

또한 CDP무용단은 2002년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졸업생들로 결성된 그룹으로 실용적 창작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안무를 구사하고 있다.

관람료는 15,000원이며 공연문의 272-7223로 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6월 3일>



▷돼지

48년생: 후반에는 잘 풀리니 긍정적으로 진행하라.
60년생: 정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72년생: 스트레스로 인해 신경이 곤두서나 외부적인 일은 잘 풀리는 운이다.
84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마라.



▷소띠

49년생: 지금은 앞으로 나아갈 때가 아닌 물러날 때.
61년생: 자신이 투자한 만큼만 돌려받는 운.
73년생: 자신의 고집만을 내세운다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될 것이다.
85년생: 흔들리는 모습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감을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라.



▷호랑이띠

50년생: 자중하며 때를 기다려라.
62년생: 마음을 다스리고 천천히 진행하라.
74년생: 인덕이 있거나 사람에게 인내 기쁜 일이 있는 운이다.
86년생: 경쟁자로 인해 힘든 운이다.



▷용띠

52년생: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하는 때.
64년생: 자존심으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76년생: 내실을 다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88년생: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운.



▷뱀띠

53년생: 결은 화려한 듯 하나 내부는 힘들다.
65년생: 계획적인 지출이 필요한 운이다.
77년생: 자신보다 강한 상대로 인해 스트레스가 예상되니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건강에도 좋지 않다.
89년생: 뒷사람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다.



▷말띠

54년생: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감을 느낄만한 일이 발생하니 대비하라.
66년생: 타인으로부터 손해를 볼 수 있는 운.
78년생: 기존의 사람에게 더욱 신경 써야 하는 운.
90년생: 언행에 조심하라.



▷원숭이띠

56년생: 기존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
68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천운이 따른다.
80년생: 건강에 신경 써야 하는 운.
92년생: 놀랄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운.



▷닭띠

57년생: 사람으로 인해 실망할 일이 생기니 주의하라.
69년생: 다른 사람의 감언이설을 조심할 것.
81년생: 속에 담아두면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불순하게 행동하니 말로 풀고 진행하라.
93년생: 아직은 때가 아니다.



▷개띠

46년생: 사람은 한번 잃으면 찾기 힘든 법이다.
58년생: 외부적인 일은 이득이 많으나 내부적인 일은 좋지 못하니 신경 써야 하는 운이다.
70년생: 아랫사람에게 신경 써야 하는 때이다.
82년생: 생각하지 못했던 실수를 범할 수 있다.



▷돼지띠

47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
59년생: 사람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겠다.
71년생: 자신의 생각이 독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83년생: 한탄권 틀어오는 운이다.